

## 경주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전개 양상

-李中久家 5代 고문서를 중심으로-

김 홍 구\*

- I. 머리말
- II. 이중구가 5대 고문서 내의 소장 자료 소개
- III.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 나타난 국채보상운동 전개 양상
  - 1. 단연회사의 조직활동
  - 2. 의연금 모금 활동
  - 3. 의연금 운송 과정과 제반 문제
  - 4. 주변 지역과의 연계 활동
- IV. 나가는 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단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李中久家 5대 고문서를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경주 斷煙會社의 조직 활동과 향촌 사회의 공동체 의식 등을 살펴보고 이전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볼 때 새롭게 밝혀진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경주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발기한 시기는 1907년 3월 18일(음력 2월 5일)이고, 단연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1907년 3월 24일인데, 경주

---

\* 단국대학교 한중관계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shawn1009@korea.ac.kr

지역의 의연금을 수금해서 서울 회사에 처음 납부하기 위해 출발한 시기는 1907년 9월 24일이다. 총 모금 금액은 1만 5500냥 쯤으로 6개월 만에 이룬 크나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역 임원의 동참에 의해 분실한 의연금을 다시 마련하였는데, 그 일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이다. 이는 단연회사의 일원으로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 낼 수 없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경주 지역 내에서 국채 보상을 위한 의연금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의연금 출연이 빠르게 진척된 강서면의 의연금을 서울로 보내 다른 면이 자극을 받게 해서 의연금 출연을 독려했다. 그리고 의연금 모금에 있어서 어느 면은 거부 의사를 밝힌 곳도 있었다. 당시에 의연금을 독려하는 행태에 대해 비난의 의사를 보이며 義捐金의 ‘義’의 명칭에 걸맞게 자발적으로 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의연금 운송을 위한 비용은 단연회 임원들이 부담하였고, 의연금의 수송을 맡은 인물은 재무를 맡은 任天植의 아들 任彙泰였다.

이중구는 단연회사를 설립하고 자신도 10원의 의연금을 내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향촌 사회의 구성원들을 응집하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돈인 金奎華와의 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

◆ 주제어

국채보상운동, 李中久家 5代 고문서, 이중구, 단연회사, 義捐金

## I. 머리말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조선과 을사늑약을 체결한 뒤 조선의 식민지화를 위해 조선에 자국의 돈을 차관하게 한다. 일제는 조선의 정치와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켜 한 나라를 존망의 위기에 빠뜨리려고 한 것이었다. 따라서 당시 지식인들은 조선을 일제의 식민지 올라미에서 빠져 나오게 하기 위해 1907년 1월에 국채보상운동을 벌이게 된다. 당시 국민들은 의연금을 모집하고 기부하여 국채를 갚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운동은 순수한 애국 충정에서 일어난 애국계몽운동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투쟁의 이념이 담겨있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 1월 29일에 대구 廣文社 사장 金光濟와 부사장 徐相敦이 발의한 뒤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다. 먼저 대구에서 大邱民議所와 大丘禁煙償債會가 처음 설립된 뒤<sup>1)</sup> 서울에서는 國債報償期成會, 國債報償中央義務所 등이 설립되어 활발하게 국채보상 활동이 이루어졌다.

1907년 1월 29일에 대구의 광문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발기된 이후 경주 지역에서는 1907년 3월 18일(음력 2월 5일)에 慶尙北道慶州郡禁煙會社趣旨書가 작성되어 의연 활동을 벌인 기록이 萬歲報에 처음 보도된다. 이전 1907년 3월 6일(음력 1월 22일)에 최현식은 국채보상단연동맹회에 공함을 보낸 기록이 있고,<sup>2)</sup> 이후에 1907년 3월 24일(음력 2월 11일)에는 경주군에서 鄉校會社廣告文이 공포되었다.<sup>3)</sup>

- 
- 1) 이문기, 「국채보상운동 초기, 발상지 대구지역의 운동 전개 양상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42, 대구사학회, 2021, 2쪽.
  - 2) 이혁은 최현식이 국채보상단연동맹회에 보낸 공함을 통해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의 전담 단체가 설립되어 본격화하기 시작한 1907년 2월 21일로부터 불과 10여 일 정도가 지나 경주에 운동소식이 전파되었다고 연구성과를 밝혔다. 이에 더 나아가 경주지역의 국채보상운동은 3월 6일을 기점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3) 향교회사광고문은 『國債報償鄉校會社冊』에 수록된 문서이다. 최현식 집안의 자료에서는 ‘國債報償斷煙義務廣告文’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채보상향교회사책』에는 향교회사광고문이라고 되어 있고, 내용도 일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혁은 이

향교회사광고문을 공포한 이유는 경주 향교에서 斷煙同盟을 결성하고 의연금 모집 활동을 벌이기 위함이었다. 이 모임은 회장에 전 교리 이중구, 전 참봉 崔鉉軾, 都財務에 유학 任天植, 전 참봉 李熙久, 贊成員에 유학 孫晉鎔, 金相翼, 李殷久, 李紀萬, 孫晉浩, 李圭海이고, 財務에 유학 安敎鉉, 權斗永, 李南和, 李禮彬, 진사 洪基燮, 유학 權肅永, 有司에 유학 南敦淳, 李恒久, 崔世杰, 李韶久으로 총 21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회의 목적은 국채보상을 위한 것이고, 사무소는 향교로 정하였으며, 해당 위원들은 실제 일은 없고 작은 문제가 있을 시에는 교체한다는 조약이 있다. 의연금의 액수는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취했으며, 대소민을 막론하고 우매한 사람들은 여러 번에 걸쳐 깨우치게 하고 깨우치고도 의연금을 내지 않는 사람은 愛國誠이 없다고 규정하여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다는 조약이 있다. 각자의 면과 동에서 일을 주관하는 사람에게 의금을 내되 어떤 사람이 의금을 내는 일을 늦추는 일이 있으면 그 취지를 모르지만, 애국성이 없다고 규정하고 이 일을 광고한다는 규정도 있다. 의금을 이미 납부한 사람의 성과 이름 및 금액을 매달 두 차례씩 신문에 게재하고 매달 15일과 30일에 향교에 모여 의연금 운송에 관해서 회의를 소집한다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다.<sup>4)</sup>

이후 1907년 4월 19일(음력 3월 7일)에 의연금 모집과 수함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演成會社를 설립하고 제정을 마련하였다. 그 규칙으로는 본 회사를 향교에 설립하고, 이름을 ‘演成會社’로 호칭하며, 문중은 말일과 보름을 따지지 말고 납부하고, 의연금 모집에 대한 반대나 일을 그르치는 문중이 있으면 신문에 광고하며, 의연금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의연금을 다 납부한 후에 해산한다는 등이 있다.<sup>5)</sup>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연구는 추진 배경, 전개 양상, 참가 계층, 역사적 의의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sup>6)</sup>, 1990년 후반에 접어들

문서의 작성시기를 3월 말로 추정하고 있는데, 『국채보상향교회사책』에서는 1907년 3월 24일(음력 2월 11일)이라고 명시되었음을 밝힌다.

4) 『國債報償鄉校會社冊』, 「鄉校會社廣告文」.

5) 『실천을기억하다』, 「향교연성회사규칙」,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2020, 38~39쪽.

면서 지역운동사 시각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다.<sup>7)</sup> 이러한 연구 성과를 통해 국채보상운동의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지역운동사는 지역별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을 고찰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었다. 다만, 고령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시문에 게재된 단편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지역별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sup>8)</sup> 최근에 들어 새로운 분야의 접근으로서, 기록학적 관점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sup>9)</sup>

- 6) 박용옥, 「국채보상운동의 여성참여」, 『사충』 12:13, 고대사학회, 1968; 이송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 1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78; 이상근,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18, 국사편찬위원회, 1990; 신용하,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조항래,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과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김상기, 「한말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이념」, 『충청문화연구』 10,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3; 심상훈,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를 통해 본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동아인문학』, 동아인문학회, 2015; 한상구,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전개양상 연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 7) 권대웅, 「고령군단연상채회의 설립과 의연금 모집」, 『한국근현대사연구』 7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김기주, 「광주·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역사학연구』 10, 호남사학회, 1996; 이형주, 「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호남문화연구』 2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8;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이상근,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인천학연구』 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김형목, 「충남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김형목, 「충북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김형목, 「성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김형목, 「강원도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지역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금중현·엄창옥, 「상주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 『대구사학』 125, 대구사학회, 2016; 구본욱·이경규,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홍와 이두훈 家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1, 대구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이문기, 「국채보상운동 초기, 발상지 대구지역의 운동 전개 양상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42, 대구사학회, 2021.
- 8) 이혁, 「경주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검토」,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2022, 497쪽 참조.

경주 지역의 지역사와 관련된 연구는 최근 2022년에 발표한 이혁의 논문이 있다. 이혁은 경주 교동 최씨 가에서 발굴된 斷煙錢文記<sup>10)</sup>를 대상으로 경주 단연회가 결성되는 과정, 의연금 수합과 운송 과정, 의연금의 용처를 조사하기 위한 국채보상금검사소가 설치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경주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시작한 예상 시기를 밝혔고, 경주 지역에서 모금한 의연금 액수를 밝혔으며, 국채보상금검사소의 활동 시기, 임원 등을 밝혔다.

앞선 이혁의 연구는 경주지역의 단연회사 회장 崔鉉軾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경주지역 단연회사의 또 다른 회장인 李中久를 중심으로 진행한 연구이다. 李中久家5代古文書<sup>11)</sup>에서 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들이 다수가 발견되었다. 이는 경주지역 단연회사 演成會의 회장이었던 이중구와 재무를 담당하였던 任天植 사이에서 주고받은 간찰이 다수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간찰을 통해 기존 연구와 자료에서 밝힐 수 없었던 경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을 규명하고, 기존 연구보다 새롭게 드러난 연구 성과를 밝히고자 한다.

9) 김경남,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수집현황과 기술규칙 제안」, 『기록학연구』, 한국기록학회, 2022.

10) 2018년 경주 교동 최씨 가의 곳간에서 ‘斷煙錢文記’라고 기록된 고문서가 발굴되었다. 이상의 고문서가 최씨 가에서 소장된 이유는 최부자택 11대 주손 崔鉉軾이 경주 단연회사인 演成會社의 회장직을 역임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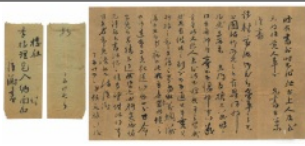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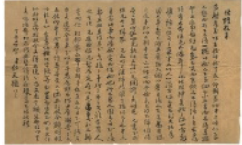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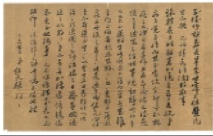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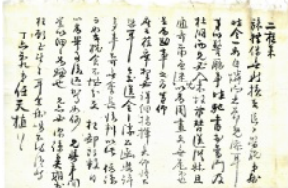
11) 『李中久家5代古文書』는 단국대학교 퇴계기념중앙도서관에서 소장되어 있고, 총 12,000건에서 연구 가치가 있는 8,004건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중구가 5대 고문서는 李中久(1851~1925)를 중심으로 李在立(1798~1853), 李能德(1826~1861), 李錫日(1886~1950), 李寅源(1923~?)에 이르는 5대에 걸쳐 산출된 고문서를 모은 자료이다(김홍구, 「근대 전환기의 관례 동향-이중구가 5대 고문서를 중심으로-」, 『민족논총』 8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3, 33~34쪽 참조).

## II. 이중구가 5대 고문서 내의 소장 자료 소개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서 국채보상과 관련된 자료 중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간찰로, 그 수는 총 22점이다. 이 고문서에서는 단연회가 결성되는 과정, 의연금을 수합하는 과정과 발생한 문제, 의연금을 운송하는 과정과 발생한 문제 등 경주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담겨있다. 전술한 자료들을 시기순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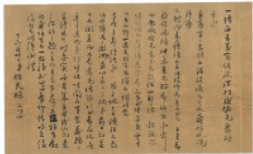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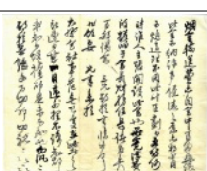



〈표 1〉 이중구가 5대 고문서 내의 경주국채보상운동 관련 자료





시기 (음력)	사진	문서번호	주요 내용
1907. 4.8 (1907.2.26.)		B419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국채의 일이 지연되고 있는 문제를 거론하며 서둘러 단체를 구성하여 입법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
1907. 4.19 (1907.3.7)		G697	김규화가 서울과 대구에서 남녀노소가 모두 강개하여 수 백만원의 단연금을 모은 사실을 언급하며 자신의 군에서도 자신이 발기인이 되어 연섭하는 등 애를 썼지만 별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등을 전달하는 내용.
1907. 4.20 (1907.3.8)		C087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수급한 총 금액은 1만 5~6천 금이라고 하고, 의연을 방해하는 사람들로 인해 아직 의연금을 보내지 않은 면이 있다고 하며, 다음달 보름 이전에 독촉하겠다고 알리는 내용.
1907. 5.2 (1907.3.20)		C089	李能允이 친족에게 의연금의 義의 맡듯처럼 개인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여 의연금을 내는 것일 뿐, 강압적으로 수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내용.

1907. 6.9 (1907.4.2 9.)		B572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경청에서 의견 금을 상납하지 않은 이유와 의견금 을 보관한 장소를 물었다고 하며, 자신은 월말에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고 여러 곳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둘러대었다는 내용.
1907. 6.17 (1907. 5.7)		B425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의금을 내지 않은 지역에 대한 의금 수금을 독촉 하고 수금한 금액을 서울로 운송할 계획이라고 전하는 내용
1907. 6.27 (1907. 5.17)		C093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순청에서 의견 금 관련 건으로 4차례나 압박을 받 고 문권을 정리한 뒤에 검사를 받았 다고 알리는 내용.
1907. 7.7 (1907. 5.27)		B406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의금을 수금한 문부와 관련하여 논의하자는 내용
1907. 7.8 (1907. 5.28)		C081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자기 아들이 내일 의견금을 서울에 납부하러 上 庠 洪氏와 함께 간다는 소식을 알리 고, 장부를 보낸다면서 전액을 다시 살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1907. 7.16 (1907. 6.7)		B380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수금한 의견 금의 액수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람 을 보내주고 상대 지역에서 수정한 책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
1907. 7.18 (1907. 6.9)		G702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의금을 서울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단연회 회장인 상대의 공함이 필요하다고 하고, 허 다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 단연회 회 장의 참석을 요청하는 내용.



경주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전개 양상(김홍구)

1907. 7.21 (1907. 6.12)		C096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의금을 작성해 놓은 文簿를 수정하는 일을 논의하고 신문에 게재된 金得哲의 건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전하는 내용.
1907. 7.29 (1907. 6.20)		C094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의연금 관련 일이 무사히 마쳐지기가 쉽지 않다고 하고 이 일에 대해 成佑 형과 깊이 논의 중이라고 전하는 내용.
1907. 9.13 (1907. 8.6)		G674	최현식 등이 이증구에게 단연금을 서울로 보내는 일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고 일진회와 경시청에 공박을 받고 있는 상황도 아울러 알리는 내용.
1907. 9.13 (1907. 8.6.)		G675	최현식 등이 이증구에게 단연전을 수송하는 비용 처리를 언급하며 단연회를 설립한 임원이 이를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한다며 임원의 왕립을 촉구하는 내용.
1907. 9.16 (1907. 8.9)		G708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단연금의 수송 비용 등의 잡비는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묻는 내용.
1907. 10.7 (1907. 9.1)		G663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모금 수만 냥을 납부하러 서울에 간 아들이 소식을 묘연하다고 알리는 내용.
1907. 12.11 (1907. 11.7)		G658	임천식이 이증구에게 자기 아들이 斷烟會 모금 수만 냥을 분실한 소식을 전하며, 경시청과 일진회가 봉납에 대한 독촉이 심해질 것이라고 알렸으며, 의연금 분실 건에 관하여 각 면과 동에 통문을 보내어 강구해보자고 의견을 전하는 등의 내용.

1908. 10.25 (1908. 10.1)		B433	의연금과 관련한 일로 서울로 오간 사실을 언급하고, 본 고을의 경찰서에서 감시가 있는 소식을 알리는 내용.
		B427	江西面の 의금을 우선 서울로 보내자는 내용 (발신자, 수신자는 임천식과 이중구로 추정)
		G695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단연금을 서울로 수송하는 일을 자기 아들에게 맡긴 것을 우려하는 마음을 전하는 내용.
		G701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그간 모은 단연금 중 1만 냥을 우선 서울로 보내고 나머지 금액은 수를 채운 다음에 보내자는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

### Ⅲ.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 나타난 국채보상운동 전개 양상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이 본격화되고 있던 시기에 경제 침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국채보상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한국사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유효하다. 본 연구과제의 대상 자료인 이중구가 5대 고문서에도 경주지역 단연회사의 활동에 관한 간찰이 다수 존재하여 지방 단위의 국채보상운동의 실제 활동을 세밀히 확인할 수 있다.

## 1. 단연회사의 조직 활동

단연회사는 李中久와 崔鉉軾<sup>12)</sup>을 주도로 경주 향교에 설립된 국채보상운동 단체이다. 이 회사는 경주지역 내의 지역 주민들에게 의연금 납부에 대한 당위성을 연설하고 의연금 모집 활동을 벌였다.

국채 상환은 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돌아와 남쪽 동정을 탐문해보니 도대체 일을 주관하거나 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느슨해진 것은 이런 까닭입니다. 천하의 모든 일이 법과 장수가 없이 이루어진 경우는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지금 형편에서는 남들의 웃음거리가 될까 염려됩니다. 이번 그믐의 鄉會에서는 단란히 모여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어르신께서는 聲五 형과 함께 만사를 제쳐두고 오셔서 일이 야무지게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향회 날짜의 전날에 저를 찾아주기를 더더욱 우러러 바랍니다. 형께서 만약 오시지 않는다면 일이 어떤 지경에 이를지 모릅니다. 깊이 해아려주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sup>13)</sup>

위의 자료는 1907년 4월 8일(음력 2월 26일)에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임천식은 1907년 3월 18일(음력 2월 5일)에 설립한 단연회사의 도재무를 맡은 인물이고, 이중구는 단연회사의 회장직을 맡은 인물이다. 임천식은 국채보상을 위한 단체가 유야무야 상태인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대안으로 먼저 법을 마련하는 모임이 있어야 함을 알렸다. 이 편지가 작성된 시기는 1907년 3월 24일(음력 2월 11일)에 경주군에서 鄉校會社廣告文이 공포된 이후 시기이고, 4월 19일(음력 3월 7

---

12) 이중구(1851~1925)는 본관은 여강이고, 철종 2년(1851)에 출생하고 고종 25년(1888)에 식년시 병과에 급제하여 교리를 지낸 이력이 있다. 최현식(1854~1928)은 본관은 경주이고, 경주 최부자 최만희(崔晩喜)의 장남으로 출생하며 만석꾼의 대를 이었으며, 고종 25년(1888) 식년 진사에 입격하였다.

13)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419, “第國債事, 此何等重大, 而歸探南邊動靜, 都無主事主論人, 事之至此疎緩, 以此故也. 天下萬事, 豈有無法無將而成之者耶. 苟如今日之勢, 則慮爲人笑矣. 以今晦日鄉會, 不可不團會立法, 望須尊座與聲五兄掃萬來臨, 以爲敦事如何. 前期來顧, 尤爲仰望耳. 兄若不來, 事未知何境, 深諒如何.”

일)에 「鄕校演成會社規則」이 제정되기 이전 시기이다. 이중구와 임천식은 서로 간에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의연금 모집과 관련된 법 규정을 논의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 2. 의연금 모금 활동

경주 지역에서 의연금 모금 단체가 설립된 뒤 지역 주민들의 의연금 출연을 독려하였다. 의연금이 모집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각 고을에서 적극 동참이 필요하였다. 모든 고을에서 적극적으로 의연금 모금 활동을 벌인다면 경주지역에서 막대한 의연금이 모이게 된다.

義金を 서울로 보내는 계획은 江西面을 앞장세워 다른 면을 복돋고자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뜻을 홍 진사에게 알리고 각 동에서 만든 문서를 빠짐없이 가지고 오게 하여 통합 장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좋겠습니다.<sup>14)</sup>

이 간찰은 작성시기, 인적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문서이다. 이 자료는 의연금의 출연이 쉽지 않자 의연금의 출연이 빠르게 진척되는 강서면의 의연금을 서울에 보내면 다른 곳들이 자극을 받아 의연금의 출연이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의연금을 서둘러 모집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의 어려움을 엿보게 하는 면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경주지역의 의연금 모금액을 확인해보면, 부내면은 223원 30전, 서면은 174원 50전, 강동면은 463원 88전, 산내면은 34원, 강서면은 655원 52전, 천북면은 77원 62전, 현곡면은 241원 32전, 내남면은 597원 41전, 내동면은 501원 8전, 외동면은 151원 26전을 내었다. 이 중에서 강서면이 가장 많은 655원 52전을 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15)</sup>

14)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427, “義金輸京之計, 將欲以江西爲先, 以鼓[鼓]他面, 未知何如, 此意通于洪進士, 以各洞成冊, 無漏持來, 以爲畢帳之地, 甚好甚好.”

15)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앞의 책, 112~118쪽 참조.

다음 자료는 의연금 모금 진척 과정을 살필 수 있는 문서이다.

義金을 받아들이는 일은 지난달 보름 이후로 다시 납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대답이 없고 牌子를 내 보아도 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서 시작되었는지 중지한다는 말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며 모두가 이 일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장차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제 생각은 약간의 거두어진 의금을 서울로 보내 신문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의금에 관한 일이 매듭지어진 동네는 불과해야 수십 개 동네이고, 또 山內面, 西面, 川北, 外東은 문서에 기록된 것과 수금된 돈이 10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의 사태로 보아서는 한 번 크게 회의를 열어 자세히 상의한 뒤에야 조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건대 모름지기 좌하께서 먼저 성우 형과 논의하여 기어이 내일 함께 왕림해주는 것이 어떠하겠는가.<sup>16)</sup>

위의 자료는 1907년 6월 17일(음력 5월 7일)에 임천식이 이종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이 당시에 의연금 모금 활동이 모든 지역에서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어느 지역에서는 거부 의사를 밝힌 곳도 있고, 의연금을 내는 데 시일이 걸리는 곳도 있었다. 의연금 모금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면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는 것을 위의 간찰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도 산내면(34원), 서면(174원 50전), 천북(77원 62전), 외동(151원 26전)은 부내면(223원 30전), 강동면(463원 88전), 강서면(655원 52전), 현곡면(241원 32전), 내남면(597원 41전), 내동면(501원 8전)에 비해 크게는 10분의 1이나 차이가 났다.

남북의 각 리에서 수금한 의연금은 그간에 많이 들어왔습니까. 대체로 지금 사람의 큰 병통은 일의 크고 작음에 따라 직접 착수하려 하지 않고 좋은 것만을 각자 말하는 데 있으니, 헛되이 세월을 허비하는 듯합니다. 결국에는 집마다 분배하지

16)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425, “第義金收捧, 自去望以後, 更無來納. 馳書而無答, 出牌而不來. 自何停止之說, 播於遠邇, 舉皆視以尋常, 此將奈何. 鄙料則以如干所收, 上送京師, 以出新聞爲計, 而其出末之洞, 不過數十, 且山內西面及川北外東, 成冊與收金, 十不居一. 到今事勢莫若一番大會商議然後, 可以區處. 望須座下先議於聲禹兄, 期於明日蒞臨如何.”

않으면 안 되니, 이는 의연금의 본래 의도가 아니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향회를 열어 비록 각 마을과 각 문중이라도 각각 스스로 의금을 내게 하고 의금을 낸 뒤에야 그만두게 하니, 의금을 내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른다면 그 의리는 좁은 듯하고, 향회를 만든 본의가 아닙니다. 이미 한 義의 글자로 맡겨두어야 할 부분이니, 모름지기 성실한 마음으로 시종 견지하고 다른 말에 동요되지 않는다면 일은 바른 데로 돌아가는 이치가 있고, 수납이 기한이 있을 것입니다.<sup>17)</sup>

위의 자료는 1907년 5월 2일(음력 3월 20일)에 이능윤이 이충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이능윤은 의연금을 강제로 모금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며 각 개인이 의리에 맞게 의연금을 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의연금의 의는 한자로 ‘義’자라고 언급하며 의리에 맞게 내야만 의연금 수금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이 간찰을 통해 당시에 애국을 위한 마음이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의연금을 독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 3. 의연금 운송 과정과 분실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주 지역의 각 고을의 기여로 의연금이 모였다. 각 지역에서 모인 의연금은 먼저 대한매일신보사에서 설치한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로 보내지고 모인 모금액은 電氣會社 내 은행에 예치해 두거나 총합소에서 관리하였다.<sup>18)</sup> 경주 지역에서는 서울의 會社團으로 의연금을 보냈는데,<sup>19)</sup> 서울의 회사는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를 말하는

17) 『李中久家五代古文書』, C089, “南北各里義捐, 其間多入否. 大抵今人大病痛, 凡係事之大小, 手不肯着, 而口好各言, 事若有玩愒之色, 下梢究竟, 不戶排不得, 此若非義金本意而不得, 則爲一番鄉會, 雖各村各門, 各自爲之, 爲之乃已, 爲之至於此境, 則其義似挾, 而非設會本義也. 既以一義字擔夯地, 須以誠實心, 始終堅持, 勿爲他言所搖, 則事有歸正之道, 而受納有期矣. 慎勿用秋霜太勝, 如何.”

18)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6일자 신문.

19)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674, “단연전을 교대로 서울의 會社團에 보내는 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6월 이후에는 연이어 길에서 경찰을 만나서 이제껏 미루어 졌지만 지금은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斷烟錢交送京會社團已晚矣. 然自六月以後連值路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자료는 서울로 의연금금 수송하기 직전에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가) 아들이 오늘 도착하였으니, 내일 일찍 출발할 계획입니다. 흥 상사가 함께 간다면 또한 믿을 만합니다. 이번의 출행은 공함에 대한 답을 해야 하고, 또한 수금한 금액은 금액을 밝혀 알려야 하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모두 미리 헤아려 처리해서 내일 출행에 군색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므로 이에 우러러 고합니다. 수금한 문부를 보내드리니, 다시 금액을 살펴서 총수를 정해서 올려주십시오.<sup>20)</sup>

(나) 아들이 꼼꼼히 계획을 세워 더는 뒷걱정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일을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좌하께서 자리에 참석해주시면 반드시 일을 자세히 지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바가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지금 의연금금을 보낼 때 공함과 허다한 일은 회장이 자리에 참석하여 결판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우러러 양해해 주십시오. 만일 혹 편히 주무시고 드시지 못한다면 다시 저희 쪽에 며칠간 왕림하여 일을 마친 뒤에 돌아가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sup>21)</sup>

자료 (가)는 1907년 7월 8일(음력 5월 28일)에 임천식이 이충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각 면에서 수금한 의연금금을 성책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단연회 회장인 이충구의 최종 점검을 받는 내용이다. 자료 (나)는 임천식이 이충구에게 보낸 간찰로, 임휘태가 서울로 의연금금을 운송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을 세웠음을 알리는 내용이다.

다음의 자료는 서울로 단연금을 수송하기 위한 수송 비용의 처리 문

警, 尙此稽緩, 而今則不得不起送].”

20) 『李中久家五代古文書』, C081, “迷兒今日來, 則明日早發爲計, 而洪上庠聯轡, 則亦爲信仰耳. 今番之行, 不可無答公函, 且所收金額, 明數以報, 未知僉意何如. 此皆預籌制置, 勿窘於明日之行似好, 故茲仰控, 收金文簿出送, 則當更考金額, 定都數以呈矣.”

21)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702, “迷兒以爲周畫, 更無尾慮, 是爲勘事之方. 第仰座下蒞席, 想必詳細指揮矣. 仰恃不恐耳. 今於送金之際, 公函與許多事, 不可無會長臨判, 以此俯諒. 而如或枕食不堪, 則更枉鄙所數日, 以爲畢事後返駕, 如何. 兄與弟間, 豈以細細爲嫌也. 兄亦必深諒矣.”

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단연금을 운송하는 비용도 회의를 통해 구별한 뒤에 단연금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무수한 침탈의 계기가 앞으로 의연 활동을 잠재울 수 있는 방도가 되니, 의금이 모인 때에 구획해야 하고 다시 한 때를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누가 이 술을 주장하여 개설하겠습니까. 결국 운송에 드는 비용은 회장과 재무, 임장이 부담해야 합니다.<sup>22)</sup>

위의 자료는 1907년 9월 13일(음력 8월 6일)에 최현식·임천식·南敎允 등이 보낸 간찰이다. 이 간찰에서 살펴보듯이 단연금을 운송하는 일은 작은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경주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800리가 넘을 정도로 먼 거리였다. 그러다 보니 예상되는 운송비가 적지 않았다. 운송비를 단연금에서 쓸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 부담을 돌릴 수도 없는 형국이었다. 그러므로 모임을 조직하고 주체한 임원들이 이 문제를 조치해야 하였다. 이 간찰을 통해 당시 단연금의 운송비용은 회장을 맡은 이중구, 최현식, 재무를 맡은 임천식, 李熙久와 이외의 찬성원과 광고원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의연금 수송을 맡은 임휘태가 경주에서 서울로 떠난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아들이 서울로 간 지 14일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잘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으니, 걱정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또 생각해보니, 이 돈은 우리들이 열심히 국에 보답하는 정성이 담긴 것이다. 저 푸른 하늘을 보니, 반드시 밝게 살피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러러 의지하고 스스로 위로되는 부분입니다.<sup>23)</sup>

위의 자료는 1907년 10월 7일(음력 9월 1일)에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

22)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675, “烟金輸送費, 亦自會中區別, 然後此金可納. 許多侵陵之概, 亦將有可熄道理, 不因此時區劃, 而更待何時, 誰人主張開設此會也. 畢竟浮費段, 擔歸于會長財務任長諸員矣.”

23)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663, “迷兒西行, 已至十四日, 而尚未聞利抵之報, 關慮不少, 而抑又思之, 則此乃吾儕熱心報國之誠也. 仰彼蒼蒼, 必有所照鑑者矣.”



보낸 간찰이다. 의연금 수송을 맡은 임태회가 서울로 떠난 지 14일이 경과되었는데도 의연금 납부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다. 임천식은 깜깜무소식인 아들의 소식을 마냥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이 간찰을 통해 경주 지역의 의연금은 1907년 9월 24일(음력 8월 17일)에 서울로 수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자료를 통해 의연금 분실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을 살펴보자.

이처럼 막중한 斷煙金 수만 냥을 제 아들을 시켜 운반하게 하였는데, 지금 들려 오는 소식에 이미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 막중한 돈이니 도리상 당연히 징수하여 납부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 고을이 모두 모여 난상토론을 거쳐 동네마다 해당 임원에게 분담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을 안에서도 재력이 서로 같지 않아, 중간에 다시 원래 액수에서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으로 함께 일을 했던 몇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먼저 회의를 진행하고, 그 뒤에 각 면과 각 동에 공문서를 발송하여 조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sup>24)</sup>

이 자료는 1907년 12월 11일(음력 11월 7일)에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임태회가 의연금을 운반하는 도중에 의연금을 분실한 소식을 전한 간찰이다. 1907년 9월 24일에 임태회는 서울로 의연금을 수송하기 위해 길을 떠났고 그로부터 80여 일이 지난 뒤에 의연금 수만 냥을 분실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임천식은 이중구에게 의연금 분실과 관련한 긴급 사항을 알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sup>25)</sup>

24)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658, “以若莫重斷煙金數萬兩, 使不肖子領送, 今者轉聞, 已爲見失 ... 莫重之錢, 勢當徵納乃已, 而事到此地, 莫若一鄉之齊會爛議, 以爲洞洞各員, 分頒之爲愈, 而如其一鄉之不同力, 則不無中間更損之慮耳. 凡吾同心并事幾許人, 不得不先爲會議, 然後可以發文各面各洞, 以爲區處, 如何如何.”

25) 최부자택 소장 자료 중, 1907년 12월 12일(음력 11월 8일)에 임천식이 교리택과 참봉택에 보낸 간찰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교리택은 이중구를 말하고, 참봉택은 최현식을 말한다. 임천식은 두 집안에 16일과 17일 향회에 참석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다. 임천식은 1907년 12월 11일에 이중구에게 아들의 의연금 분실 소식을 전달하고, 다음날에 이중구와 최현식에게 향회 일정을 잡아서 의연금 분실과 관련하여 논의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임태휘가 어떤 이유로 의연금을 분실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일은 경주 지역 전체와 관계된 큰 문제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지역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먼저 회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 것이다. 한 지역에서 모인 의연금은 그 액수가 적지 않다. 하지만 분실한 금액을 지역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기지 않고 각 지역 임원이 해결하려는 모습에서 책임감과 사명감의 인간상을 볼 수 있기도 하며 한 단체의 운명공동체적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기도 하다.

금액에 대한 처리는 모두 아들이 해야 할 것으로 그 아비도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진실되고 믿을 만한 그 누구에게 이 물건을 대신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이전부터 잘못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형세상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저에게 유독 요구합니까. ...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말을 만들어 만 냥이라고 하고, 먼저 보내겠다며 이미 돈을 보내고, 나머지 액수는 다시 전체 수를 거두어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sup>26)</sup>

이 자료는 임천식이 이중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이 간찰은 작성시기를 알 수 없지만, 편지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분실한 의연금과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미 아들 임태휘가 의연금을 분실하였고, 이후에 잃어버린 의연금인 1만 5500냥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전체 1만 5500냥 중에서 먼저 만 냥을 모아서 보내고 추후에 나머지 금액을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sup>27)</sup>

임천식은 이중구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연금 모금 활동에 있어 우

26)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701, “金額區處, 皆兒子所算量分置者, 其父亦難知矣. 且信實者何人, 可以替送此物也. 既誤於前, 而到今以勢不可爲之節, 獨求於弟耶. 現今事端, 實非紙上一二語可得料理矣. 諒之否. 弟料則到今成言曰萬兩, 以先納之意, 已爲持送, 而餘數, 當更收滿數以送云云如何.”

27) 최부자택 소장 자료 중, 1907년 12월 12일(음력 11월 8일)에 임천식이 교리택과 참봉택에 보낸 간찰이 존재하는데, 『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30일자 기사에 임태휘가 의연금을 12월에 본사에 납부하였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1907년 12월 16일과 17일 향회에서 각 임원이 의연금을 다시 내고, 12월 안에 서울 본사로 의연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려를 표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친일단체였던 一進會의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 일진회는 일본의 명령에 따라 모금 활동을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하도록 중간에 개입하여 각 지방의 단체들이 모금액을 갈취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거나 국채보상운동을 벌이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다.<sup>28)</sup>

경시청의 조사가 날로 급박하고 일진회의 위엄이 매우 삼엄하니, 며칠 안으로 봉납을 독촉하고 명령을 재촉하는 때가 시급할 것입니다. 이는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위엄을 부리는 것입니다.<sup>29)</sup>

이 자료는 앞서 살펴본 1907년 11월 7일에 일어난 의연금 분실 사건에 대해 주고받은 간찰 뒷부분이다. 일진회는 위의 사례와 같이 경주 지역에서 그동안 모인 의연금을 서울로 봉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는 경주 지역에서 모인 나랏돈을 불러 사사로이 이자를 취하려는 혐의를 뒤집어씌우려는 소행이었다. 일진회는 공적인 일을 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목적인 의연 활동을 반대하기 위해 근거 없는 낭설을 퍼뜨려 방해하였다. 경주 지역에서도 또한 방해 공작이 없지는 않았다. 방해 공작은 일진회뿐만이 아니라 경시청도 마찬가지였다.

회사의 일은 어제 경시청에서 한 순검이 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금 회장을 데려오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회사가 설립된 지 이제 3~4개월이니, 수금한 금액은 필시 수만 냥에 이르렀을 것이다. 하지만 위로 아직도 한 푼도 상납한 돈이 없으니, 자기 물건으로 삼아서 이익을 꾀하려는 것인가. 돈은 누구에게 맡겼으며 돈은 어디에 두었는지 기어이 자세히 알고자 한다.” 그러므로 우선 제가 “회사의 월말의 모임을 이전 어느 때에 가졌지만 여러 임원이 齋會한 뒤에 그 돈의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을 두는 규정에 대해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한곳에 모두 둘 수는 없

28) 『대한매일신보』 1907년 4월 4일 기사에 자강화에서 국채보상에 대하여 일진회 회장 宋秉畤를 불러서 회의를 열었는데, 송병준이 극구 반대하며 ‘나라가 어떤 재정이 있어서 거액을 수취하였겠는가? 조만간에 스스로 파탄날 것이다.’라고 한 내용이 실려 있다.

29)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658, “且一進所風威甚懍, 將欲不日督捧促令時急, 此皆憑公以威者也.”

어서 임원 중에 믿고 진실된 사람을 골라서 나누어 맡겨두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처럼 방해 공작을 펼치는데 무슨 의도인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sup>30)</sup>

위의 자료는 1907년 6월 9일(음력 1907년 4월 29일)에 임천식이 이 중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이 간찰에서 경시청은 단연회사가 모금한 의연금 액수와 의연금을 모아둔 장소에 대해 집요하게 물었다. 경시청의 속내를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임천식의 마지막을 통해서 경시청이 의연금 모집에 대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일진회와 경시청의 방해 공작으로 의연금 활동에 난항을 겪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임천식의 아들이 일진회와 경시청에 의해 의연금을 분실했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다. 매일신보사의 1907년 4월 10일 자 기사에는 廣州의 군민들이 국채보상금 20환을 거두어 기성회에 납입하고자 서울로 갔다가 강도를 만나 그 돈을 빼앗겼다고 보도된 적이 있다. 이를 통해 보면 어떠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의연금을 분실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1907년 9월 24일에 경주에서 서울로 의연금을 운송한 뒤에 의연금 운송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다.<sup>31)</sup> 1907년 10월 23일(음력 9월 17일)에 단연회사 회장 최현식에게 한 통의 간찰을 보낸다. 그 내용은 서울에 의연금을 납부하는 일이었다. 이중구는 洛善이 서울에 의연금을 납부하는 일을 마쳤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보낸 편지를 읽어 보니 상황이 좋지만은 않다고 하였다. 의연금을 가지고 간 사람이 납부하지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납부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東萊銀行에 예치하는 것은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서울 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또 사람들과 상의하여 결정하자는

30) 『李中久家五代古文書』, B572, “第會社事, 昨自警廳, 一巡檢出來爲言, 方有率來會長之令, 而會社之設, 已至三四月, 所收金必至累萬矣. 而上尙無一分上納, 將作已物爲料利耶. 錢任何人, 錢置何地, 期欲詳知云云. 故姑爲答之曰, 會社月終之會, 在前伊時, 諸任員齋會然後, 可以知其錢數矣. 至於任置之規, 則際此險世, 不可都置一處, 擇諸任員中信實者, 分任耳, 如是防塞, 而未知其何意也.”

31)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앞의 책, 74~77쪽.

말도 남졌다. 이 간찰을 통해 보면 서울에 의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것이 좋은지 서로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이 와중에 또한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연금 분실 사건이 터진(1907. 11. 7) 이후에 의연금을 서울 회사에 보낸다는 명문이 있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명문에서 임천식은 “1907년 11월 14일에 다짐합니다. 다짐할 일은 본 군의 국채보상의금액 1만 7434냥을 각 면, 각 동, 각 인원의 이름 아래에 쓰고 이번 달 그믐 안에 서울 회사에 납부하고 하나하나 신문에 게재하겠다고 다짐합니다.”라고 작성하였다.<sup>32)</sup> 임천식은 의연금 분실 사건이 터진 7일 만에 의연금을 다시 회수한 것이다. 앞서 임천식은 함께 일했던 몇 사람과 회의를 거치고 다시 지역 임원들에게 알리자고 이종구에게 제안하였다. 위의 결과로 보면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역 임원들이 의연금을 내는데 적극 동참하였고 그러한 성과로 단연금을 회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의 자료는 경주 지역에서 모금한 의연금 총액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이다.

의무의 일은 이전에 巡廳에서 와서 네 차례나 재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문권을 정리하여 도합 1만 5500냥이 되었는데, 자신이 담당한 것으로 標를 해 두고 가서 질정하고 또한 이치대로 설명하니, 그쪽에서 더는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sup>33)</sup>

위의 자료는 1907년 6월 27일(음력 1907년 5월 17일)에 임천식이 이종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순청에서 의연금을 조사할 당시에 단연회 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임천식은 문권을 정리하면서 기록한 의연금의 액수가 1만 5500냥임을 밝혔다. 장부에 작성된 금액의 총액이 1만 5500냥

32) 경주최부자민족정신선양회, 앞의 책, 88~89쪽.

33) 『李中久家五代古文書』, C093, “義務事, 前自巡廳來迫, 至於四次, 故再昨日修準文券, 合數一萬伍千伍百兩, 以天植所擔置標往質, 而且說明以理, 則更無他言.”

이라는 것이다. 앞선 1907년 7월 8일(음력 5월 28일) 간찰에서 임천식은 각 면에서 수금한 의연금을 성책했다고 밝혔다. 경주지역에서 모인 의연금은 1만 5500냥 쯤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의연금 분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서울 회사로 보내기로 한 금액은 1만 7434냥임을 알 수 있다.

#### 4. 주변 지역과의 연계 활동

국채보상운동이 처음 발기한 시기는 1907년 2월이었다. 대구에서 처음 이 운동이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이라는 이름을 붙인 여러 단체가 창립되었다. 경주에서도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주 향교를 시작으로 단연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를 주도한 인물은 이중구였고, 이중구와 사돈 관계이면서 평소 편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교유한 이가 金奎華(1837~1927)이다. 그는 자신의 고장 창녕에서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다.

저희 군에서는 부득이 제가 城社에서 발기하여 부모들과 함께 여러 차례 연설을 하였지만 호응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른바 부유하고 이름난 사람들은 모두 도망칠 궁리만 하고 있으니 가증스럽고 개탄스럽습니다. 지금 여러 차례 忠義를 분발시키고자 하지만 아직 그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겠습니까.<sup>34)</sup>

위의 자료는 1907년 4월 19일(1907년 3월 7일)에 김규화가 사돈 이중구에게 보낸 간찰이다. 김규화는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자 이에 호응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창녕 지역에서 발기하였지만, 자신의 생각과는 다르게 의연금 모집 활동에 난항을 겪었다. 경주 지역에서는 3월 초순부터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편지는 4월 19일에 작성되었으므로 경주 지역이 창녕 지역보다 먼저 단연 활동을 벌

34) 『李中久家五代古文書』, G697, “鄙郡則不得已我爲發起於城社, 與父老累累演說, 無一人應聲, 所謂饒名者, 都爲謀避爲計, 可憎可慨, 方屢屢勸動其忠義, 而姑未回下之何如.”

였다. 김규화는 단연회사 회장 이중구와 사돈 관계이고, 편지를 보내어 자신의 행적을 소상히 알린 점으로 보아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중구의 영향을 받아 국채보상 활동을 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IV. 나가는 말

지금까지 단국대학교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중구가 5대 고문서를 대상으로 경주 지역에서 발기한 단연회사의 조직 활동과 향촌 사회의 공동체 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전의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볼 때 새롭게 밝혀진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 지역에서 국채보상운동이 발기한 시기는 1907년 3월 18일(음력 2월 5일)이고, 단연회사가 설립된 시기는 1907년 3월 24일인데, 경주 지역의 의연금금을 수금해서 서울 회사에 처음 납부하러 간 시기는 1907년 9월 24일이다. 총 모금 금액은 수만 냥에 이르렀으니 6개월 만에 이룬 크나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역 임원이 한마음이 되어 분실한 금액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이다. 이는 단연회사의 일원으로서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루어 낼 수 없는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경주 지역 내에서 국채 보상을 위한 의연금 모집이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었다. 의연금 출연이 빠르게 진척되는 강서면의 의연금금을 서울로 보내서 다른 면이 자극을 받게 해서 의연금 출연을 독려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의연금 모금에 있어서 어느 면은 거부 의사를 밝힌 곳도 있었다. 당시 의연금금을 독려하는 행태에 대한 비난의 어조도 보였다. 의연금의 ‘義’를 강조하며 의리에 맞게 내는 것이 의연금이라고 하였다.

셋째, 경주에서 서울까지 의연금금을 수송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었다. 단연회 임원들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돌리지 않고 자신들이 의연금의 운송비용을 부담하였다. 회장을 맡은 이중구, 최현식, 재무를 맡은

임천식, 이희구와 이외의 찬성원과 광고원이 부담하였다. 의연금 수송을 맡은 인물은 재무를 맡은 임천식의 아들 임휘태였다. 경주지역에서 모인 의연금은 1만 5500냥 쯤으로 예상할 수 있고, 의연금 분실 사건이 터진 이후에 서울 회사로 다시 보내기로 한 금액은 1만 7434냥이었다. 분실한 의연금은 각 지역의 임원들이 각출해서 낸 것으로 보인다.

국채보상운동은 주지하다시피 1907년 1월 29일에 대구의 광문사에서 시작되었는데, 경주 지역에서는 그 뒤 1907년 3월 18일에 금연회사 취지서가 작성되었다. 경북권 내의 고령이 3월 13일이고 상주는 4월 9일, 경기 지역은 3월 13일이 가장 빠른 시기이고, 전북의 경우도 금산군의 一心同盟會의 3월 18일이 가장 빠른 시기이며, 충북의 國債報償義助勸告文湖中紳士等의 경우도 3월 7일이다. 대구의 광문사에서 국채보상운동을 처음 발기한 후, 경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빠르게 국채보상운동을 벌였다고 볼 수 있다.

이중구는 단연회사를 설립하고 자신도 10원의 의연금을 내며 국채보상운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다. 향촌 사회의 구성원들을 응집하는 초석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회적인 책무를 일깨우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리고 사돈인 김규화와의 교류를 통해 다른 지역의 국채보상운동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있다.

※ 이 논문은 2023년 05월 22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05월 25일부터 06월 0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06월 08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참고문헌

『國債報償斷煙會社冊』

『大韓每日申報』

『萬歲報』

『실천을기억하다』

『李中久家五代古文書』

권대웅, 「고령군단연상채회의 설립과 의연금 모집」, 『한국근현대사연구』 77, 한국근현대사학회, 2016, 56~82쪽.

금중현·엄창욱, 「상주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 『대구사학』 125, 대구사학회, 2016, 141~168쪽.

구본욱·이경규, 「고령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전개과정에 관한 고찰-홍화 이두훈 家의 고문서를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31, 대구카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7, 101~138쪽.

김경남, 「세계기록유산 국채보상운동기록물의 수집현황과 기술규칙 제안」, 『기록학연구』 71, 한국기록학회, 2022, 91~130쪽.

김기주, 「광주·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역사학연구』 10, 호남사학회, 1996, 185~220쪽.

김상기, 「한말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와 이념」, 『충청문화연구』 10,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2013, 19~39쪽.

김흥구, 「근대 전환기의 관례 동향-이중구가 5대 고문서를 중심으로-」, 『민족논총』 83,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3, 29~58쪽.

김형목, 「충남지방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5,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 151~187쪽.

김형목, 「충북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상 의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41~78쪽.

김형목, 「성주지역 국채보상운동의 지역운동사에서 위상」,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4, 5~40쪽.

- 김형목, 「강원도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지역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2,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5, 5~44쪽.
- 박용옥, 「국채보상운동의 여성참여」, 『사충』 12·13, 고대사학회, 1968, 621~643쪽.
- 신용하, 「애국계몽운동에서 본 국채보상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1~19쪽.
- 심상훈,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자료를 통해 본 국채보상운동의 전개양상과 성격」, 『동아인문학』 33, 동아인문학회, 2015, 341~371쪽.
- 이상근,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18, 국사편찬위원회, 1990, 1~28쪽.
- 이상근, 「경기지역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4,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0, 189~213쪽.
- 이상근, 「인천광역시 지역의 국채보상운동」, 『인천학연구』 2,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3, 137~161쪽.
- 이송희, 「한말 국채보상운동에 관한 일연구」, 『이대사원』 15,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1978, 1~43쪽.
- 이문기, 「국채보상운동 초기, 발상지 대구지역의 운동 전개 양상에 대한 재검토」, 『대구사학』 142, 대구사학회, 2021, 29~95쪽.
- 이혁, 「경주국채보상운동의 전개 양상 검토」, 『동방한문학』 91, 동방한문학회, 2022, 495~532쪽.
- 이형주, 「전남지방의 국채보상운동」, 『호남문화연구』 26,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1998, 51~80쪽.
- 정진석, 「국채보상운동과 언론의 역할」,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193~243쪽.
- 조항래, 「국채보상운동의 발단과 전개과정」,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993, 57~128쪽.
- 한상구, 「1907년 국채보상운동의 전국적 전개양상 연구」, 『인문연구』 75,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121~156쪽.

Abstract

##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in Gyeongju

-Based on antique documents of Lee Joong-gu's five generations-

Kim, Hong-goo

This paper investigates organizational activities of Danyeon Company in Gyeongju and community spirit of rural community societies found in the process of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and summarizes new discoveries compared to previous studies, based on antiques documents of Lee Joong-gu's five generations possessed by Danook Univeristy.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started on March 18<sup>th</sup> (February 5<sup>th</sup> of the lunar calendar) 1907 in Gyeongju, Danyeon Company was established on March 24<sup>th</sup> 1907, and the contribution of Gyeongju was first delivered to the company in Seoul on September 24<sup>th</sup> 1907. The total contribution amount was around 15,500 nyang, a successful achievement in six months. It is more startling that the contribution was lost by a local executive, but it was collected only in one week. This accomplishment would have been impossible without the awareness of 'destiny-sharing-community' as a member of no-smoking company.

Contribution for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in Gyeongju was not easily collected. Contribution from Gang-seo Myun, where contribution was donated fast, was sent to Seoul first to motivate other

Myuns to collect donations. Some Myuns showed intention of refusal to fund-raising. They criticized activities of encouraging donations, arguing that donation should be made voluntarily as it meant to be. The executives of Danyeon Company bore the expenses for delivering the donations, and Lim Hee-tae, son of Lim Cheon-sik in charge of finance, delivered the donations.

After establishing Danyeon Company, Lee Joong-gu donated 10 won himself and actively contributed to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He laid the foundation of cohering members of rural community society, and accordingly enlightened local residents of social responsibilities. He also cooperated with his in-law Kim Gyu-hwa to indirectly contribute to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in other regions.

**keywords :**

National Debt Repayment Movement, Lee Joong-gu's five generations, Lee Joong-gu, Danyeon Company, Appeal Fund.